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3월 10일(음력2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464호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불교문양 '특허'로 지켜라

佛·卍 등 문양 수십종 상표등록 … 업체가 선점
'해인도' 유사문양 이미 등록, 해인사 상표 못 얻어

"대응 안하면 문화포교에 타격"

한 성인용품 제조업체가 연꽃문양과 유사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상표를, 어떤 주류업체는 불(佛)자를 술병 모양으로 형상화해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불교계는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지만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가상 시나리오다. 하지만 그리 먼 시점의 일이 아니다. 최근 드러난 해인사 사례는 이미 불교 문양에 대한 지적재산권 시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인사는 지난해 3월 화엄경의 대의를 그림으로 표현한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최근 특허청 상표심사국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 특허를 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등록된 상표는 '옥황도(玉皇徒)'라는 상표명으로 '철학역학사 양성업' 등의 서비스업에 등록돼 있으며, 자세히 뜯어보지 않고는 화엄일승법계도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다.

화엄일승법계도를 '해인도'라고 부르며 사찰의 상징처럼 이 문양을 사용해 온 해인사는 자칫 해인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미 출원된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이지만 '불(佛)' '만(卍)'과 같은 문양도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상표등록이 돼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불(佛)'자의 경우는 10여 가지 형태의 상표가 귀금속류나 신발, 모자 등 150여 품목(상품)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만(卍)'이나 '옴마니반메훔'도 5가지 형태의 상표가 사찰운영업, 사찰관리업, 수의 등의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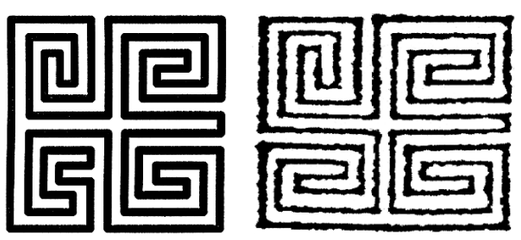
문제는 불교 문양이 캐릭터나 상표 등록에서 선점 당하면서 지나친 상업화나 불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상황까지도 초래한다는 점이다.

해인사의 화엄일승법계도 상표등록 출원을 맡았던 김국진 변호사는 "분쟁소지는 물론 불교계가 불교 문양을 개발하거나 캐릭터화해 불교 문화산업진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상품성이 큰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온라인(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찬불가나 한글대장경의 지적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캐릭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된 사례는 지난 1997년 봉축위원회가 봉축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기소한 것이 고작이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불교 캐릭터 대부분이 의장등록이나 상표등록이 돼 있지 않아 분쟁 소지가 많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종단 명칭 또한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단이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불교인들마저 혼동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불교 상징이나 문양에 대한 특허출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특별히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어 인식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명우 · 박봉영 기자



해인사가 상표등록을 낸 해인도(왼쪽)와 개인이 이미 등록한 옥황도.

관응당 지안 스님의 영결 · 다비식이 3월 3일 직지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직지사=박재완 기자

관응당 지안 스님 원적

3월 3일 직지사서 영결 · 다비 엄수

조계종 명예원로이자 제8교구 직지사 조실인 관응당 지안(觀應堂 智眼) 대종사가 2월 28일 오후7시 주석처인 직지사 중암에서 원적에 들어 3월3일 직지사에서 영결식과 다비식이 봉행됐다.

세수 95세, 법랍 76세를 일기로 입적한 관응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1만여 사부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치러졌다.

다비식은 관응 스님의 평소 뜻대로 소박하게 거행됐으며, 다비식 다음날인 4일 습골의식이 진행됐다.

1910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관응 스님은 29년 탄옹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일본 용곡대에서 수학했으며 직지사 주지, 김용사 강원 강사, 동국학원 이사, 보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관응 스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그림자를 낳지 않는다"며 열반게를 남기지 않았다. 관응 스님 행장 4면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위덕대 새 총장에 한재숙 씨 선임

학교법인 회당학원(이사장 진당)은 2월 27일 한재숙(56 · 사진) 영남대 교수를 제 3대 위덕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한재숙 총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대학, 경쟁력 있고 강한 대학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총장은 영남대 생활과학대학장과 생활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호외발행안내: 본지는 관응 큰스님의 원적과 관련 3월 3일자로 호외를 발행해 김천 직지사 등 일부지역에 배포했으며금주 464호와 함께 발송합니다.

16+16의 즐거움!
현대불교신문은
세계 불교 정보의 '총본산' 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신청

■ 전화요금 합산 납부 신청
전화요금에 구독료를 합산하여 납부
(한국통신 전화번호와 전화가입자 이름만 전화로 통보하시면 신청완료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납부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법보시 후원 동참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복지기관 등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 월 구독료 : 5천원
■ 구독 · 법보시 동참 문의
02)737-0090, 02)737-8881

선원장 초청 대법회

현산 스님 '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3월 14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2004 부다피아 여름캠프

하와이에서 여름방학을! 영어 배우고 역사 · 문화체험도…

본사는 창간10주년을 맞아 100년전 이민의 첫발을 내디딘 미국 하와이에서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문화체험캠프를 개최합니다. 2004 부다피아 여름캠프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하와이에서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8일~8월 17일(20박 21일)
□ **참가비:** 25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50명
□ **참가신청:** 3월 15일~5월 10일까지(미국 비자신청은 별도문의 바람)
□ **장소:** 하와이 무량사 한인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주관:** 하와이 싯다르타대학교 부설 영어교육원
□ **후원:**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 **협찬:** 진각종통리원 (재)보덕학회 (재)대한불교진흥원

□ **주요프로그램**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54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원어민 교사와 총 60시간에 걸쳐 역사 문화지역을 함께 탐방하며 회화를 실제 상황에 적용.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바다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 **준비물:** 여권, 미국 비자, 학생증, 필기도구, 카메라와 필름, 속옷 3-4벌, 셔츠와 바지 2~3벌, 모자와 선글래스, 수영복과 샌들, 비옷, 수건과 비누, 자외선 차단크림, 작은가방

문의: 현대불교신문 02) 722-4162~3, 016-292-1987 / 참가비 입금통장: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할'

그림 · 조태호

- 대원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www.mahamall.co.kr
다양한 연등을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을 밝힙시다

www.mahamall.co.kr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만 월 등 ▶ 사이즈 : 32cm X 32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흰색(영가), 오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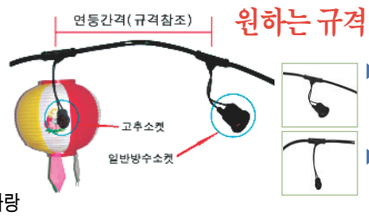
공단등(비단등,실크등) ▶ 지 름 : 23Cm(大)18cm(中)15cm(小) ▶ 색 상 : 황금, 연분홍, 진분홍, 빨강, 흰색(영가등)

종 등 ▶ 사이즈 : 40cm X 27cm ▶ 색 상 : 노랑, 연두, 분홍, 빨강, 오렌지

팔모접등(주름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 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팔모조립등 ▶ 사이즈 : 26cm X 26cm ▶ 색 상 : 핑크, 오렌지, 연두, 파랑

연등용 전선케이블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 특 징 : 안전검사를 완료한 전선(KS인증) 100%사용 연등전선구입시 반드시 KS인증을 받은 전선인지 확인하십시요.
▶ 등간격 : 1M, 2M, 3M, 4M, 5M
※기타 규격 별도 주문
연등의 간격은 등1개당 간격을 말합니다.

마하몰에서 빠르고 편하게 연등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주문 전화 : 02)732-1520